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 1253호  
7월 20일  
2024년  
토요일

#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 성령·말씀·은혜충만 교단연합수련회

초5·6, 중·고, 청년 7월 28일(주일)~30일(화) 대림벤엘 평창수양관에서  
예배·찬양·간증... 총회장 김영준 목사 외 김전수, 김진원 목사 등 강사로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온교회 담임



조선평 목사  
교육국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교단 교육국(국장 조선평 목사) 주관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대회장 김영준 목사)가 지난 7월 28일(주일)부터 7월 30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담임 조선평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전국에서 초등부 56학년,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들이 모여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로서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국에서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2박 3일간 열리게 될 이번 캠프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행 19:2)라는 주제아래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2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예배 말씀을 비

롯 교단 부흥사회장 김전수 목사와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김진원 목사의 성령충만 집회 인도, 선택특강 1,2 찬양콘서트, 간증콘서트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기 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회본부장 조선평 목사는 교단내 중소형 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개최하는 2024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목회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문의 010-5119-0164, 010-8262-4722



2023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단연합수련회 광경.

##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성명서>  
편향된 이념을 좇아  
여성을 역차별하고,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  
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 박선하 의원 등 1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6월 21일 본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안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편향된 이념을 좇아 여성을 역차별하고,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조례임이 명백하다.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례, 시행규칙 등은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해당 법률,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설계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시설은 여성, 남성으로 성별이 잘 구분되어 있지만 새삼스럽게 디자인 요소로서 '성별'을 거론하는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새삼스럽게 조례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장애인, 노인, 영유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 남성 등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은 변태성욕자와 성범죄자들이 애용하는 사실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성중립 화장실은 역사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 명목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성중립 화장실은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소가 되어 버렸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성별' 구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변태성욕자와 성범죄자들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새삼스럽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 성전환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일하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위한 내용은 각종 법률과 조례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를 운운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려진 것처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조례임이 명확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신부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국적 등

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흥시설, 남녀 구분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각종 여성전용시설, 외국인 전용 시설(카지노, 게스트하우스) 등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원한다면,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를 바란다. 해외 사례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성중립 화장실로 인해 여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한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은 경상북도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경북도민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만약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편향된 이념을 좇아 조례의 발의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6. 16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 올바른 다음세대세움 연구소, 천안의말씀 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다음세대위한학부모포럼,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학부모인권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구미지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천지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꿈을만들어가시는시민연합, 포항자유민주총연맹, 포항자유애국시민연합, 국민을 위한대안포럼지부, 미래세대세움희망연구소, 새로운한국경북지부

##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 5:3)



조용목 목사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눅 6:20) 이 말씀을 단순히 해석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근원적인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난이 심령을 가난하게 되게 한다면 복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다음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결국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무능과 무력함을 철저히 드러내어줍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과 무능하고 무력함을 알게 되어 탄식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는 복음을 들으면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맞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여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줍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광주지방회 제주도에서 춘계부부수양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제주도에서 춘계부부수양회를 가졌다. 이번 수양회에는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고 의미 있는 수양회가 되었다.

새벽 광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안에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도착하여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향하여 점심식사를 시작으로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 회의실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진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배영례 목사의 기도, 회장 김영호 목사의 설교, 재무·회계 정지선 목사의 헌금기도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3:1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삶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려야함을 강조하고, 목회자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새겨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이 흘러 나가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쳤다.

이어 나라와 민족, 총회와 지방회를 위해 합심하여 뜨



겁게 기도한 후 전임회장 김정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를 통해 지방회의 전반에 걸친 안전들과 사안들을 처리하고 전임회장 주덕영 목사의 동의와 전임회장 조길수 목사의 제청으로 월례회를 모두 마쳤다. 하루의 일정 속에 피곤함도 있지만 기쁨과 행복 가득하고 속으로 각자 흠뻑했다.

이튿날과 셋째 날까지 제주의 일몰과 파도, 여유와 인파, 그리고 사려니숲길도 밟았쥬 견고, 이기종 선교기념관까지 두루 돌아 잊지 못할 추억과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광주공항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추계행사를 기대하며 부푼 마음 그대로 수요예배를 준비하며 사역지로 향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다.





# 한기총, 제35-1차 임시총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보수로서 역할 다할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5-1차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후 성수보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정관 수정 및 개정의 건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정관 제19조 1항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게 출마할 수 없다.’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승인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337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208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신구)(총회장 김영신 목사, 223개 교회)의 신규 회원 가입을 보고받고 각 총회원이 나와 인사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대표 전광훈 목사) 소속의 오재조 목사 등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정지처분 사건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소송인 것과 전광훈 목사의 전 비서실장인 이은재(제명), 김운복 목사(3년 자격정지)가 제기한 고발사건이 허위, 왜곡에 의한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었을 때 발생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당했으나, 정서영 대표회장 등의 출연으로 정상화된 것과 이 과정에서 탈퇴 혹은 회비 미납으로 줄어든 회원 수가 신규 가입, 복귀 등으로 현재 84개 교단,

단체가 되어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이 사회가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보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정학재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성경 본문을 봉독했으며,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축도하고, 회의는 공동회장 이영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 동성애 반대한 英 기독교인 해고된 뒤 패소

사회복지사 펠릭스 응골레 간접차별 주장 기각

영국 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직원 채용을 취소하고 복직을 거부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채용이 취소된 펠릭스 응골레(46)는 독실한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로 알려졌다.

응골레의 변호를 맡은 영국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에 따르면, 고용재판소의 조나단 브레인 판사는 NHS 채용 담당자인 터치스톤 리즈(Touchstone Leeds)가 채용 제안을 철회한 것이 응골레에게 직접적인 차별을 가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응골레의 신념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한 2차 면접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서 “간



접 차별 및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브레인 판사는 채용 철회에 대해 “응골레의 견해가 성소수자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고객의 신뢰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터치스톤의 채용 취소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기독교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이 LGBT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개인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CEO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왜곡된 논리”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며,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고용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정환 목사 공갈미수·배임수재, ‘불송치’ 결정

한기총사무총장 상대로 의도적 고발 남발 결과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제명), 김운복 목사(3년 자격정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배임수재 고발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었을 당시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녹음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것이다.

또한 배임수재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제35-1차 임시총회(6월 27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6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를 통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 중앙아시아 최초순교자 기념행사

순교자의소리, ‘순교자의 날’ 맞아 비사랍 목사 기려

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폴리)는 지난 6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성북구 정릉동 소재 순교자의소리 사무실에서 ‘순교자의 날(6.29)’을 맞아 2004년 1월 12일 중앙아시아에서 순교한 세르게이 비사랍 목사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한 대가로 점점 더 많은 규제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에 직면해있다”라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끌고 나갈 담대한 현지 사역자들을 계속 세우고 계신다”라고 강조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교회 대부분은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나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사역에 관해서만 듣기 때문에 비사랍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이것이 순교자의 소리에 비사랍 목사의 순교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가 기념한 비사랍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 전 중앙아시아 지하범죄조직의 우두머리로 감옥에서 수감생활 중 동료수감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석방 후 목회자가 되어 중앙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세르게이 비사랍 목사는 지난 2004년 1월 12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창가에서 있다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근거리에서 저격당해 목숨을 잃고 순교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날 비사랍 목사의 순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순교자 연대표에 세르게이 비사랍 목사의 명패를 부착했다.

## ‘퀴어축제 축복’ 감리교 목회자 6인, 고발당해

총회 동성애대책위·감바연·감거협·웨성본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

올해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이하 감리교) 목사 6인이 고발당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감리교바르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는 지난 7월 8일(월) 오전 11시 인천시 감리교 중부연회 본부에서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고발키로 한 이들은 홍보연 목사(서울연회 서대문지방 맑은샘교회), 박경양 목사(서울남연회 구로지방 평화의교회), 윤여군 목사(중부연회 강화동지방 남산교회), 남재영 목사(남부연회, 대전중부지방 빈들의 공동체교회), 김형국 목사(충북연회 제천동지방 양화교회), 차흥도 목사(충북연회 음성지방 농민교회)다.

이들은 앞서 이동환 목사가 2019년 부평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것을 두고 지난해 교단이 교리와장정에 의거해



이 목사를 ‘출교’ 처분했음도, 이를 무시한 채 올해 6월 1일 서울시 을지로입구 일대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비슷한 형식의 축복식을 거행했다.

감리교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범교의 종류로 규정해 이를 위반 시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 제3항에 따

라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자회견 1부 예배는 이선규 목사(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사회, 이구일 목사(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대표기도, 이경식 장로(서울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성경봉독, 김찬호 감독(중부연회,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단, 르완다와 창업 인재 양성

‘2024 르완다 온라인 디자인스프린트 캠프’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이 르완다 현지 대학들과 협력해 ‘2024 르완다 온라인 디자인스프린트 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

된 이번 캠프에는 르완다 국립대학교와 종합 기술전문대학교 소속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유니트윈 사업단은 구글벤처스의 ‘디자인 스프린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참가자들

이 르완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도록 지도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실제적인 창업 역량을 키웠다.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조성배 교수와 학생보조연구원팀은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르완다의 사회문제 해결에 끈기 있게 매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르완다 국립대학 테오폴 니온지마 교수는 “유니트윈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 ‘공공신학과 선교적 상상력 콘퍼런스’ 개최

공공성 실현 ‘교회의 과제와 역할 인식해야’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비롯해 교육, 국제정치, 법, 문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KHN 코리아네이비스(이사장 이정희 목사, 회장 최명덕 목사)와 선교적상상연구소(소장 주상락 교수는 지난 7월 2일(화) 성락성결교회에서 ‘공공신학과 선교적 상상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서울과 ZOOM을 통해 진행하며 미국 동·서부, 독일, 필리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와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구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을 격려했다.

콘퍼런스에서 이정희 목사는 “한국교회는 ‘공적신앙’ 개념을 확장 시켜 공공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고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인식



이 절실하다”며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센터로서의 교회’와 ‘정의의 학교로서의 교회’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최명덕 목사(조치원교회)의 ‘공공신학과 문화콘텐츠’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영달 교수(전 서울대 사범대 학장)가 교육, 주상락 교수가 공공신학, 이규영 박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KHN

학술원장)가 국제정치, 성석환 교수(장신대)가 문화, 김성수 교수(평택대)가 법, 김승환 교수(장신대)가 공적 목회, 김상덕 교수(한신대)가 기독교 시민을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

강연 후에는 김성호 교수(서울신대)의 논찬을 거쳐 강연자들과 함께 목회 현장 및 공공신학 테이블 토크 자리도 마련했다.

## 호프월드미션, 일본단기선교 참가자 모집

2024 HOPE JAPAN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제로

호프월드미션(HWM, 대표 김용국 목사)이 오는 8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4 HOPE JAPAN’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단기선교는 일본교회순방, 일본선교 세미나, 노방전양, 노방전도, 시가지 예수대행진,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평신도나 목회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05년 미국에서 세워진 호프월드미션(HWM)은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해 온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다.

문의: 02-313-0691, 010-4194-6710

세부일정: <https://cafe.naver.com/hopen/47071>





■ 생명의 말씀 ■



최형택 목사

- 교단 전임총무
- 전라지방회 전임회장
- 광양은혜교회 담임

비 내리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가끔 외로워 질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량하게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한 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가구였는데 이제 쓸모없게 되어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지만 또 어느 순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건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 줄 때 외로워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화려함 뒤에 슬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중 몇은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셨지만 유독 아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좋지 않았습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려 70~80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50~6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는 병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

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 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외로움과 친밀합니다.

한반뿐인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아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 외롭지 않습니다

요 14:16-17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사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여 감동의 도가니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이보다 더한 신비로움이 더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안에 계신다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알지니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친히 가르치시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배신을 당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에, 아무도 나를 격려, 사랑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매순간마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힘이 되어 주세요.”

바림받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 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동정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선수촌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지난 7월 10일(수)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 해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진행한 이날 격려 방문에는 정서영 목사를 비롯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생 극복 위한 정책 간담회



지난 7월 5일(금) 오후 조배숙 의원(6선, 국민의힘)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평신도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출신운동본부이사장 박영종 장로, 김운태 목사 등이 참석했다.

탈북민들과의 행사 개최



제21차 북한자유주간에 美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이하 현지 시간) 하일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주관으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개최됐다. 소위원장인 영 김(Young Kim)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는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경읽기 기초 컨퍼런스



‘공동체 성경읽기와 제자도’라는 주제의 신학 컨퍼런스가 지난 7월 4일(목), 5일(금) 경기 이천 에덴과 라디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美 덴버신학교 크레이그 블룸버그(Craig Blomberg, 신학박) 석좌교수와 정성호 교수(조직신학)가 각각 ‘공동체 성경읽기의 해석학적 원리들’을 주제로 각각 초청 강연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평화 뒤에 도사린 전쟁을 살펴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수당에 의하여 ‘입법독주’ ‘입법독재’ ‘입법횡포’를 우려했는데, 그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인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 이기현, 공동발의: 윤건영, 박해철, 박민규, 김남근, 김성화, 복기왕, 김원이, 박상혁, 이용우, 강준현, 조계원, 박홍근, 박희승, 김 현, 윤종근, 안태현 의원)

이들은 지난 7월 2일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는데(이안번호: 1323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히 기가 막힌다. 이들의 소속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누구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

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의 권한을 삭제한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안보 업무에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 방식의 조사권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정보를 대공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할 것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 시켜 정치적 개입과 정략적 이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백변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안, 그리고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존립을 위한 것이 맞

는지 의아스럽다.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중에 정보(情報)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국가에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국가 간 교류와 통상, 외교와 심지어 전쟁에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자르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여 목까지 치겠다는 것인가? 그러려면 왜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서 국가정보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한낱 권력자들의 이용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라는 모든 정보에서 밀려 고도의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간첩 활동이나 중요한 기밀의 유출 등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정보기관에 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의한, 국가의 보안과 방첩 기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마저 박탈하여 유명무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락시켜려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가?

파수꾼이 없는 병영(兵營)은 이미 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실책이다. 국가 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떠한 적의 도발과 음모로부터 방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불필요하지만, 그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행위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편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일 때, 우리의 안위는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를까? 목욕물을 버리겠다며 아이까지 버리려는가?

사실 제22대 국회는 정식으로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입법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악법’과 ‘폐법’과 ‘국가광탈법’을 양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밖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세력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국가를 허물려는 세력들에게서도 국가를 지켜내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

##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싸왓디캄!

태국방콕에서 6월에 드리는 선교편지입니다.

방콕안디옥교회

시순절을 맞이하여 시작되었던 저녁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마지막 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귀했습나다. 이어서 금요일(Good Friday)에는 성도들이 금식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로 보냈고, 부활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매일 저녁기도회(19:00-20:00)를 진행하며 교회와 선교사역과 코로나 이후 각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누워있던 “B” 학생은 이제 거동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목에 연결한 관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 심방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 꼭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고



반부야교회 시멘트포장(진입로와 앞뒤와 오른쪽편)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농짜이디오교회

남농짜이디오교회는 지난 1월 15일에 기공예배를 드린 이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누차 전도사 건강(전립선과 방광염)이 좋지 않아 공사가 생각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차 전도사를 위로하고 교회 건축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랏똥깨우교회 차이차나 전도사와 성도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올라가서 3일 동안 공사를 돕고 내려왔습니다. 차이차나 전도사는 창틀 알루미늄 샷시를 제작하였고, 저와 성도들은 내외벽 페인트칠을 돕고 아내는 음식과 간식 등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하며 공사를 돕고 왔습나다. 이제 남은 전기공사와 예배실 바닥 타일 깔기 및 천정 등의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훈련/모임

4월 1일부터 3일까지 방콕안디옥교회에서 제1차 목회자훈련(성령론)을 진행했습니다. 목회자 부부(12명) 초청으로 2차 3일간 안디옥교회에서 숙박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후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에 까이와 켄 사모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역사하심에 눈물을 흘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을 나누었고, 목회자들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는 간증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일간 함께 하며 온 종일 진행하는 강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주시는 힘으로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 목회자훈련(성령은사론)은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4-15일 양일간 논똔분교회(핀치 목사)에서 목회자 모임을 갖고 400여 가구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저녁에는 전도를 받고 영접한 분들과 초청에 응한 마을 주민들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 목회자들과 근처 숙소에서 쉬고 다음날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을 먹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이 주일예배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반부야교회와 논똔분교회

반부야교회는 지난 높이기 공사 이후에 지반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다져져서 진입로와 교회 주변 시멘트 포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논똔분교회는 지붕 레이트 부분교체와 천정 전면교체를 마쳤고, 예배당 내부 벽면에 1.2m 높이가 토질로 인해 페인트가 지속적 으로 벗겨져서 타일을 붙이는 작업과 내부 페인트칠을 마쳤고, 벽면용 선풍기 4대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단기선교/방문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춘천교회 16분의 교역자들이 방콕안디옥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를 생각하며 한국 사적재(식료품)를 공수해 주신 목사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에어부산 신우회 단기선교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어부산 신우회 19명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단기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첫날인 14일에는 논똔분교회에 가서 가가호호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찬양, 4영리 전하기, 위십, 부채춤, 복음전한 후 영접기도, 복음 팔찌 나누기 외에 풍선아트, 물 풍선, 페이스 페인팅, 즉석 팝콘과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랏똥깨우교회 지역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주일에는 방콕안디옥교회에서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은혜보다도 뜨겁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열정으로 단기선교에 임한 에어부산 신우회 방문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방문과 섬김을 통해 3지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5월 13일에는 CCC에서 순원이었던 홍기표 안수집사가 방콕 안디옥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가족이모저모

아내는 예약된 진료가 있어서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 후에 저도 입국(4/25-5/22)해서 교단총회와 후원교회 선교보고 및 건강체조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선이와 주은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은이는 비자연장(영주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데 어디든 보

내시는 곳에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기는 주님 은혜로 무사히 전역(4/23)을 하여 지금은 필리핀 이인로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2달간 인턴십(5/7-7/7)을 하고 복학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남농짜이디오 교회 남은 건축과 반부야교회 미니축구장, 놀이터와 지붕슬레이트 교체 공사를 위해
  - 므영씨쨌깬교회 예배 공간 확장 공사가 시작되도록 (건축업자가 다른 공사로 지연되고 있음)
  - 랏똥깨우교회(차이차나 전도사) 전도를 위한 무료 밭 맛사지실 공사와 교회 담장 설치, 계단 손잡이 공사에 대한 소요를 위해
  - 나콘파농교회와 논똔분교회 옆 부지 매입을 위해(주일학교와 숙소 용도)
  - 저와 아내의 건강과 선교사역 잘 감당하도록
  - 둘째 주은이에게 예비하신 길로 진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 선기의 필리핀 인턴십(5/7-7/7)과 8월 4학년 신학교 복학과 필요를 위해
- 선교지에서의 모든 선교는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늘 함께 해 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싸왓디캄!

2024년 6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김학봉 서미식 선교사 드림



## 시대분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

###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7월 1일(월) 오전 11시 전남 고흥시 소재 녹동순복음교회에서 2024년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딤편 1:1-4 말씀을 본문으로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견경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영생의 소망을 위해 세워진 자로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라지방회 교역자들이 되도 록 힘쓰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감감신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최규식 목사의 기도으로 시작된 2부 회의에

서는 회원 점명과 총무 서기 회계 보고를 마치고, 지방회 목회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최남성 목사의 기도으로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애찬과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나누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라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 다짐

###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7월 2일(화) 은혜와천양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심권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곽은선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회장 엄기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행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호수아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를 시종드는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섬기



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작은 일에도 성실히 순종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하나님과 백성과 모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목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임회장 정운기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에서는

회계보고와, 총무보고 이후 은혜와천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나누었다.

육천 장계관광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지방회 회원 모두는 주 안에서 교제를 통한 위로와 힘을 얻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의 7월 월례회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월례회 및 순복음참빛교회 이전감사예배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5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26번길 13에 위치한 순복음참빛교회(강인덕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예정회 목사(예수사랑교회)의 사회로 오세준 목사(순복음참빛교회)의 대표기도, 이경진 목사(다사랑교회)의 설교, 육준수 목사(향기로운교회)의 헌금기도, 김장수 목사(예순교회)의 축도, 전



한배 목사(서광중앙교회)의 폐회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월례회 개최 재중 탈북민 구명 위해 기도

###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박수진 목사)는 지난 7월 9일(화) 오전 11시 강원도 횡성 소재 참좋은전원교회(권도진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정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직전회장 이세연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회장 김동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11:26-28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는 성도, 기도, 축도이며,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며,



특별 기도제목으로 현재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기도했다.

계속해서 예배는 최남성 목사의 헌금기도, 권도진 목사(참좋은전원교회)의 인사과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산종교 물결은 횡성으로 이전 한 후 처음으로 지방회 월례회를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는 멀리서 찾아오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지역사회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장 박수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참좋은전원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와 차를 함께 나누며 단합과 친목을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

### 경기북지방회 7월 월례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7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향기로운교회(담임 육준수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나라의 안정과 발전 안보강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육준수 목사(향기로운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우광덕 목사(선한목자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장



수 목사(다사랑교회)의 설교, 육준수 목사(향

기로운교회)의 헌금기도, 김장수 목사(예

교회)의 설교, 이경진 목사(다사랑교회)의 헌금기도, 강인덕 목사(순복음참빛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장수 목사는 사 40:27-31 말씀을 본문으로 “새 힘을 얻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상황을 불평

하거나 불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크기만큼 불평과 불만은 그 용량이 작아지며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 주

재로 총무/서기 전한배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서기 보고, 재무 박태균 목사의 재정보고 등의 순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향기로운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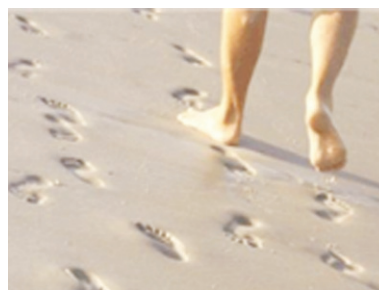
#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은혜와진리교회 인천성전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13시00분 : 점심식사
- 14시30분 : 맨발 걷기
-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인천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9  
TEL : 032-469-3742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 거룩한방파제 강화서 출정식 및 선포식

‘거룩한 국토순례’ 5번째, 인천-강원 432km 대장정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혁명 쓰나미를 막아낼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국토순례 5번째 대장정이 시작됐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대표 오정호 목사, 국토순례단장 홍호수 목사)는 지난 7월 10일(수) 오전 11시 인천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에서 출정식 및 선포식을 열었다.

제5차 국토순례는 후전선 155마일 최북단, 인천과 경기, 강원을 잇는 432km 구간이다. 8월 5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설악산 등 14개 지역에 동역자들을 세울 계획이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에 귀어축제, 학생인권조례, 성혁명교육과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생활동반자법, 아동기보법안 등에 반대하고, 다음세대와 우리의 가정, 학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역 교계와 함께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국토순례에는 60대 이하의 믿음과 신체 건강한 남·여가 참여한다. 숙소는 해당 지역의 교회를 이용하며, 하루 평균 약 20~30km 내외의 도보 행진을 펼친다. 지역별로 파켓과 전단지 홍보에도 열을 올려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출정식 및 선포식 1부 예배는 강화기독교연합회 회계 원철의 목사(부근교회)의 사회, 이진식 신부(강화도 대한성공회 석포리교회)의 기도, 강화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조성만 목사(교동중앙교회)의 설교,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이사장 최훈철 목사(양진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원철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선포식에서는 강화기독교연합회 회장 민중인 목사가 환영사, 좋은 세상연구포럼 김세환 대표(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가 격려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민중인 목사(강화기독교연합회회장)는 “세상에는 파도처럼 막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거룩한방파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세속적인 것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 왔다”고 치하했다.

김세환 대표는 “성혁명의 공격이 쓰나미처럼 할 위고 있다.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며 “거룩한방파제가 이 시대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한국교회는 서구에서부터 밀려오는 동성에 합법화 물결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뿐 아니라, 무너진 유교교회를 회복시키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는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차 국토순례 단장 홍호수 목사는 “14개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교회들과 선포식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방파제를 세워 주실 것”이라며 “다음세대와 우리의 가정, 학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를 정치적인 운동으로 단정짓고 동참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홍호수 단장은 “마음이 아프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지역 모든 목회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 있는 목회자와 성도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 한기총 총무협, 2024년 워크숍

“회원간 상호유기적 협력 관계 향상 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총무협의회는 지난 7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베트남 달랏과 나트랑에서 “2024년 총무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31명의 한기총 회원 총무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워크숍은 한기총 발전을 위한 총무들의 제안과 총무협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총무협의회 회장 서승원 목사는 “회원 총무님들 간의 친목을 통해, 한기총 교단과 단체의 상호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한기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제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달랏과 나트랑의 여러 지역과 문화를 탐방하고 베트남의 역사와 선교적 상황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일(목)에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기총이 나아갈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토의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보수 연합기관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기총의 시작과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한기총 정책강제를 발표한 것도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이며, 이 큰 틀 안에서 각자의 영역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들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정 대표회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장(개혁총연) 총무 송금섭 목사는 “선배 총무 목사님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했고, 예장(합보) 총무 오창열 목사는 “주님의 은혜와 대표회장님, 목사님들의 섬김으로 즐겁게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으며, LS지킴이 총무 이충오 목사는 “총무협의 도약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다큐영화 ‘건국 전쟁’ 이 보도한 이승만의 진실 논쟁

이승만의 독립정신, 애국운동, 자유민주국가 건설, 농지개혁, 한미동맹 체결, 전국민 기초교육 및 산업화와 자유기업, 원자력 육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

TV조선이 이번 2024년 6월 현충일 전날 밤 다큐영화 ‘건국전쟁’을 방영하였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날 ‘건국전쟁’을 방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킨 대통령을 추억하는 것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이승만은 한반도에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독립국가 창시자로,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선구자였다. 그가 만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독재자”, “한강 철교 끊고 도망간 권승만”이라고 매도당하는 이유는 이승만 때문에 남조선 혁명을 좌절당한 극좌 친북좌파의 이승만 악마화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으로 전국민 차원에서 이승만 바로 알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을 폄하한 ‘백년전쟁’은 침묵하고 있다. 2013년 제작돼 수백만이 시청한 이 다큐물은 이승만을 하와이 강패, 테러리스트, 백인 미녀들과 놀아난 플레이 보이로 원색 비방한 ‘이승만 죽이기’의 결정판이었다.

‘건국전쟁’에 이어 앞으로 새로운 사료들이 이승만 왜곡을 깨뜨리고 진실의 역사를 조명해주기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역사를 잊을 뿐 아니라 왜곡하고 지우려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건국전쟁’은 그 같은 과오와 민낯을 고발한다. 영화 ‘건국전쟁’이 무수한 고정관념과 비판적 전말들을 깨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파’, ‘다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승만’. 대한민국 사회, 특히 좌편향된 문화예술계에서 도저히 인기가 없을 것만 같았던, 아니 오히려 거센 비난과 반발까지도 예상됐던 이 키워드들을 모두 품고도, 이 영화는 연이은 박수갈채와 함께 “우리가 이승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각성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살림나베는 6.25전쟁 74주년 맞이하여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인정한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이승만은 왕조시대에 태어나 왕조를 국민들의 국가로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다.

이승만은 고종 폐위 음모 사건 때문에 옥중살이를 하였다. 봉건 전제군주국가에서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만들고, 여성 참

정권을 보장하였고, 신분 차별을 없앴다. 그는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을 졸업하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73세에 대통령이 되어 농지개혁을 시행하여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75세 때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였고, 휴전 후에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하여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전쟁을 억제하였다. 그는 산업화 초석을 놓았다. 그는 국민소득 63달러 상황에서 1959년 원자력 개발을 위해 젊은 과학자들을 미국 유학시키고 서울대에 원자력학과를 만들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닦았다. 그가 추진한 과학기술육성과 산업화에 기반한 자유기업육성 정책은 한국전쟁 후 87달러의 대한민국을 오늘날 3만6천달러의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가로 만드는 기초를 닦았다.

2. 이승만의 정음 선언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던 분단을 일찌치른 선제적 구국 결단이었다.

이승만을 비난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한 이승만의 ‘정음 선언’이 민족을 반쪽 내서라도 권좌를 차지하려는 노욕(老慾)의 발로였다고 폄해한다.

그러나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1945년 8-9월 38선 남북의 통행과 통신·우편을 차단했다. 스탈린은 9월 20일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슈킨에게 ‘한반도 북부에 소련의 이익을 영구히 구축할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아직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들어서 토지 국유화를 추진했다. 분단의 원인은 이승만이 아니라 소련과 북한이었다.

이승만이 귀국하기 전에 소련 스탈린이 북한에 친소 정권 수립을 지시했고 남북 간 38선 통행도 소련이 금지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이승만이 분단의 책임자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북한은 1946년 2월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하였기에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 정음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선언은 소련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를 막았으며 뒤이어 1948년 건국에 기여하였다. 이승만의 건

국은 518년 조선왕조를 민주공화정으로 바꾼 대혁명이었다. 당시 한국민의 70% 이상은 사회주의를 선호하였으며 극한적 이념 갈등으로 인한 내전 상황이었으나 이승만은 이런 내전을 극복한 후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이 살길이며 공산주의는 절대 불가함은 40년간 미국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만이 체득한 선견지명이었다.

3. 이승만은 친일파를 등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각료 대부분은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이승만이 임명한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법무부장관 이인, 문교부장관 안호상, 농림부장관 조봉암 등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의 삶, 그리고 그가 내렸던 선택의 순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다. 그의 과오와 공적을 바로 저울질하여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바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내각 각료 대부분이 항일·독립운동가였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에 협조한 인물에게 과거를 묻지 않은 결과 내각에 강양욱·이승엽·정국은 등 과거 친일 경력이 있던 인물이 상당수 들어갔다.

4. 6.25 전쟁이 나자 이승만은 해외도피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6·25 초기 주한 미 대사가 해외 도피를 권유하자 권총까지 꺼내 들고 물리친 이승만과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도피시킨 김일성의 행태와도 대비된다.

미국 CIA 감청 부서에서 기록한 1950년 6월 27일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원본을 분석한 결과, 연설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 달라’는 내용은 없었다. 무조건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를 떠나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권유하자 이승만은 권총을 꺼내 들고 ‘인민군이 들어오면 이 총으로 그들을 쏘고, 마지막 한 발은 내게 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에 나오는 증언이다. 이승만은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국토를 사수했다. 전쟁을 일으켜 놓고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피신시킨 인물은 북한의 김일성이었다. 이러한 김일성과는 달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 중 279번의 연설을 하며 장병의 사기를 북돋웠던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은 대조된다.

5. 미제의 앞잡이었다? 아니다. 그는 당시 투철한 국제적 안목으로 미국에 자주적 정책을 편 강력한 지미(知美) 정치가였다.

이승만이 미제의 앞잡이라는 것은 모함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광대한 영토를 지닌 미국은 당시 한반도에 큰 관심이 없었다. 가난한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는 처음부터 미국의 관심 밖이었다. 이런 미국을 상대

했다. 이승만은 독재자였다? 사실이 아니다. 만약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뒤엎는 독재 체제였다면 의회와 언론의 역할이 봉쇄돼야 했을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 ‘독재자 이승만’이라는 것은 당시 야당의 정치적 구호 속에서 주로 등장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평화선과 독도 수호, 전체 예산의 20%를 배정했던 교육 정책, 원자력 산업의 초석 등 1950년대에 세계 정치사에서 찾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이승만 혐오를 방치했다.”

8. 1960년 4대 대통령선거 당시 왜곡 부정부패 원흉이었다? 그의 경쟁자 조병옥이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죽자 단독후보였다. 부정부패는 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조병옥의 서거로 인해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적이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공작으로, 이승만과는 무관했다. 4.19혁명의 사실점이 된 사건은 3.15 부정선거였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이승만과 조병옥 둘뿐이었다. 그러나 조병옥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기에, 결론적으로 단일후보였던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비민주적 속임수로 우매한 대중을 기만하여 독재 권력을 얻었다는 586세대 좌편향 학자들의 전향적인 논법은 “대부분은 문맹이어서 누구든 기호 1번을 달고 나오면 당선되는 게 당연하다”고 왜곡하였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전쟁시였으나 1952년 전국 투표율은 88.09%에 달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국민 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수치다. 그 결과 74.61%라는 실로 무서운

득표율을 과시하며 기호 2번 이승만은 기호 1번인 조봉암(득표율 11.35%)을 제치고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9. 이승만은 4.19가 나자 스스로 하야하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문 격려하였다.

4·19가 일어나고 나흘 뒤, 85세의 이승만이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 위문하고 북받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맞아 할 총을 우리 귀한 아이들이 맞았다”며 울었고, 스스로 하야하는 용단을 내렸다. 서울대 1학년생으로 4·19 시위대에 있었던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은 이 장면을 증언하면서 괴력한다. “이 대통령이 울먹이는 장면은 당시 모든 언론에 보도됐다. 장례식에 수백만 인파가 몰렸듯이 이 박사에 대한 국민 반감도 크지 않았다. 이승만에 대한 증오는 이승만 시대를 살지 않은 586 종북 세력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10. 하야(下野)후 가난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거할 곳이 없어 교포가 마련한 집에서 지냈다.

이승만은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쿠스처럼 비자금을 비축하지 않았다. 그가 하와이에서 기거한 곳은 교포들이 제공해 준 것이었다. 이승만은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비싼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만류하고 모아서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귀국하려했다. 하지만 고령에 건강이 나빠져서 하와이에서 90세 나이로 별세했다.

11.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낭설(浪說)에서 벗어나 참 애국자를 바로 알아 후대에 남기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유일하게 자유와 경제 번영을 당대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 선두에 이승만이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낡은 좌파이념에 빠지지 말라!

이승만의 삶, 그리고 그가 내렸던 선택의 순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이승만보다 뛰어난 애국정신, 독립운동, 경력, 학력, 외교적 식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자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시대를 앞섰던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은 ‘독립에 미친 늑대’에서 ‘예언자’로 바뀌었고, 그의 앞선 각종 정책과 외교는 그가 세우고 봉사한 자유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기적의 나라’로 불리게 된 초석이 됐다. 말년의 장기 집권에 따른 실정은 그를 모신 측근들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과오와 공적을 바로 저울질하여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바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2024년 7월 10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 ‘가자지구 아동돕기’ 긴급지원 캠페인 전개

희망친구 기아대책, 재건 위해 국제구호 공조나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가자지구 전쟁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병원을 포함한 주요 시설 및 인프라가 붕괴됐다. 물, 전기, 식량 공급도 줄어들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설사, 황달, 수막염, 수도 등 전염성 질환까지 급증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월까지 사망한 아동은 1만4,500명이다. 지난 3월 발표된 통합식량안보단계 IPC보고서는 가자지구 인구 절반인 11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7월 중순 경에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식량 재앙·기근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아대책은 ‘가자지구 아동돕기’ 긴급지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가자지구 아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한다. 이번 구호활동은 가자지구 내에서 접근 및 직접적 활동이 가능

한 협력단체 IHP(International Health Partners), HORA(House on the Rock Association)와 공조로 진행된다.

본 캠페인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관련 내용 및 참여는 기아대책 홈페이지(<https://www.kfh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두위 희망친구 기아대책 나눔참여본부장은 “지금도 가자지구에서는 가습 아픈 전쟁 상황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기아대책의 국제구호 전문성과 철저한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및 위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과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대책은 1994년부터 내전 및 분쟁, 자연재해 등 재난에 처한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될 수 있도록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시 난민 긴급구호금 및 물자를 지원했으며,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에는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정착촌을 지원하여 이번 6월 현지에 이양한 바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진리의 빛

어둠에 가려진 진실의 빛이여,  
지는 노을 앞 산길 물들 때  
황혼길 나그네 시름  
쉬어 넘는 저 구름 뒤에  
찬란한 눈물이 되었다.

아 태평의 세월이여,  
불의와 불평이 해돋이가 되었던가.  
일그린 영웅들이여  
푸른 하늘 드높은 창공을 바라보라.

헛된 욕망은 부질없는 꿈을 잠재우고  
든 구름은 하루살이 모래성을 쌓았도다.  
너 탐욕이여 오만의 웃을 입으라.  
너 악이여 네 얼굴을 분칠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슬프다 인생이여  
하루를 살아도 천년으로 살라.  
기억하자 천년을 산다한들  
예수있는 하루에 비견하라.  
앞산 봉우리 우뚝선 고목이여  
청아한 녹음단란 순전한 무욕의 표상이라.  
아 내 영혼의 고향  
신령한 믿음의 지평선 넘어  
맑고 밝은 아름다운 주의 지성소 있어.

오늘 나 여기 거하며 주께 수종들리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도다” (시편 37: 28)  
이 때에 한 생명  
구원코자 외치는 외마디 영접기도는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외침이다.

필리핀 선교  
교도소에서의 현장 전도는  
금보석과 같은  
심금을 울리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박영수 목사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으며  
모두 두 손 들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 수 교수

## 수련회 참가자 중 820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학생 수련회에서 6월 25일부터 3일간 장기기증 캠페인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생선교회 여름수련회’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친 결과 820명의 청년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생명나눔의 열기를 더했다고 밝혔다.

1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We, the Sent!(보냄 받은 우리)’ (요한복음 17:18)를 주제로 기독교청년들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특강으로 채워졌다. 특강을 통해 신앙훈련에 임한 청년들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비전박람회를 찾아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부의 장기기증 홍보 부스를 찾은 청년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했다. 비전박람회를 기획한 황경철 목사는 수련회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자각하고, 부활



의 산소망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숭고한 선택이다.”라며, “교회와 기독교청년이 생명나눔 운동에 앞장서 사회의 선순환으로 이루자.”라고 권면한 바 있다. 이날 부스를 찾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청년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웃사랑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에 생명나눔 운동이 힘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생명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더욱 활발히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실무 역량 강화로 뷰티 산업 취업 경쟁력 제고’

성결대, ‘U7 연합취업캠프’ 실전 취업 프로그램 제공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http://www.sungkyul.ac.kr))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피부미용사 스페셜 실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결대 ‘피부미용사 스페셜 실무 교육과정’은 실제 뷰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뷰티 취업시장을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계획부터 실천까지 실습 위주의 강의를 통해 배우며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현장 경력자의 멘토링과 2회에 걸친 실전 시뮬레이션도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결대 진성아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이번 피부미용사 스페셜 실무 교육과정은 뷰티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구직난을 대비해 피부미용 실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 천년초의 효능

#####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정신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사상이 되었던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변방으로 밀려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평화도 전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대정신이 사라지고 가난과 질병과 부정부패, 남녀차별과 신분제도가 절망을 안겨주었던 조선 말기 바람직하지 못했던 전통적 사상까지 집어삼키고 새로운 정신과 희망을 주었던 정신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 받은 이들을 감싸주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이 세상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었으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 정신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 기독교는 국가 전체의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인구의 1/5이 기독교인이지만, 그 영향력은 1/5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사랑에 대한 정신의 실종, 혹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말뿐인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적 사랑입니다. 성경은 에로스(eros)라는 이성적 사랑, 필리아(philia)라는 우정적인 사랑, 아가페(agape)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이성간의 사랑이나 친구간의 우정적인 사랑 등은 조건 있는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조건을 찾으면 참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chesed)입니다. 불변의 사랑 또는 은혜와 인자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은혜는 저버리고 의무도 다하지 않는, 사랑만 노래하는 현대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사랑을 말할 때 분명한 뜻의 ‘헤세드의 사랑’을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사랑, 헤세드를 알고 실천하므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는 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본향 가는 길

빛 되신 주님 나라  
만발한 꽃들로 가득 찬 나라  
그 나라 내 맘 속에 천국 있겠네.

거센 파도 풍랑은 말씀 듣고 잠잠코  
호수 위의 빈 배는 가난한 나의 마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두 그루의 나무 온 몸으로 찬양하고  
목마른 사슴 물가에서 목 축이니  
본향 길 걸어가는 걸음 소망차구나.

몸 찢고 피 흘려 몸소 내신 그 길...  
저기 저 좁은 길... 생명 길 보이네.  
그 길 위를 걷는 인생...  
축복이여라.



김용숙화백

더위와 싸우지 않고 즐기던 날.  
믿음으로 사는 김용숙 화백의  
그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히 11:13-16을 찾아본다.

사설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200년 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여러 도시에서 동일한 순간 측정한 그림자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평설 지지자들은 세상이 둥글지 않고 평평하게 보인다고 주장한다.

지구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 눈높이로는 지구의 굴곡이 보일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주장에도 반박할 자료가 없었다. 지금은 우주 시대다. 우주에서는 둥글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인들이 보내온 전송 사진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다. 지구가 둥글고 푸른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NASA가 소개하는 자료는 모두 가짜라고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런데 미국 성인 10%가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18~24세 중에서는 66% 정도만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초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기원 전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한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76년의 사람이다. 뿔속 깊이 스며든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평평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것이 수 백 번도 더 넘게 확인됐지만 남모르게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뿐인가? 마라도나가 살아온다고 믿으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마라도나교도 있다고 한다.

이념도 이에 못지않다. 한 번 뿔속으로 이념이 들어가 버리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떤가? 정상이 아닌듯하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세계가 염려하는 것은 북극의 밀착이다. 그들이 왜 밀착하고 있나?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다 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급 관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극 밀착이 ‘윤석열 정부 강성 외교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윤석열식 이념 편중 외교가 푸틴 방북을 낳았다’고 했다. 이른바 ‘구타 유발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맞을 것을 해서 맞았다는 식으로 패린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맞을 것을 해서 잘 맞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이게 정상인가? 무슨 짓을 해도 북한이나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들, 서방이 참석을 마다한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정부는 대사를 보냈고, 러시아 외교 차관의 방한도 공들여 성사시켰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실상 무기 지원’ 노래를 부르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 주의를 주는 일도 있었다. 이런데도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게 러시아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있다고? 우리의 우방이나 동맹, 유사 압장국들은 푸틴을 전범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를 대했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자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며칠 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이른바 개딸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며 최고위원 후보로써 최고 득표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을 트집 잡아 한 말이다. 엄밀히 따지면 호준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 국가다. 동맹과 군사협력은 다른 얘기다. 동맹은 침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하는 것이지만 군사 협력은 그게 아니다. 미국은 자동 개입을 주지만 일본은 아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것을 트집 잡아 한 말인데, 그 후 호준석 대변인은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를 한 일이다. 그런 사람이 대장 출신이라고 수권 자격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딸들만 의식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꼭꼭 그 자체다.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밀리는 이유를 그들만 왜 모르고 있을까? 한도 끝도 없이 개딸들에게 구애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진정 안타깝다. 공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누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누탈하리라”(막 3:24-2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고문

대회장

주요 강사

선교국장

대회본부장

청년국장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영준 목사  
교단 총회장  
갈릴리큰소망교회 담임



김영준 목사  
교단 총회장  
갈릴리큰소망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  
교단 부총회장  
제주한마음교회 담임



김진원 목사  
인천지방회 전임 회장  
예수이름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교단 전임서기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교육국장  
대림벨엘교회 담임



오세준 목사  
청년국장  
순복음참좋은교회 담임

주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Second Blessing!) (행 19:2)

- 기간 : 2024년 7월 28일(주일) ~ 7월 30일(화) 2박3일간
- 주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Second Blessing!)(행 19:2)
- 장소 : 대림벨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제길 21-4)
- 대상 : 각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 등록접수 : 2024년 7월 28일(주일) 17시부터
- 회비 : 청년, 중고등부 1인 7만원, 초등부 1인 4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의 : 1) 대림벨엘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순복음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벨엘교회 교육부